

## Verdict

**Winning Hypothesis:** 매크로 현실이 옳고 시장이 잘못 가격 매긴 이유: 금 가격과 실질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붕괴 ( $R^2=0.0238$ ) 되었으며, 이는 '달러 패권 견제'라는 새로운 거시적 내러티브 하에서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세가 서방 자금 유출을 상쇄하고 가격 하단을 견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T10Y2Y 양수 전환과 CPI 상승은 표면적인 하방 압력 요인이지만, 경기 침체 부재 (UMCSENT, ICSA 데이터) 로 인한 실물 경제의 견조함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신흥국과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확대라는 구조적 수요가 금 가격을 실질금리 상승 압력보다 더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금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구조적 상승 추세의 일시적 휴식기에 불과함.

시장 참여자들은 중동 전쟁 리스크 해소 기대와 연준의 'Higher for Longer' 기조로 인한 실질금리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안전자산 수요 위축과 '진작 팔아야 했다'는 심리가 결합되어 금 가격이 4,500 달러선 하회 및 15% 급락과 같은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T10Y2Y 의 양수 전환과 CPI 상승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여 금 가격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판단입니다. 시장이 주장하는 '실질금리 상승에 의한 금 가격 하락' 메커니즘은 현재 데이터상 통계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금 가격과 10 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 $R^2$ ) 가 0.0172 로 극도로 낮아져, 실질금리 상승이 금 가격 하락을 주도한다는 가설 A 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1 년간 금 가격이 43.26% 급등한 구조적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고점 대비 12.95% 하락한 조정은 장기 추세를 무너뜨리기에는 제한적인 폭이며, 달러 인덱스 (DXY) 가 1 년간 -1.79% 하락했음에도 금이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은 달러 패권 견제라는 새로운 내러티브 하에서 중앙은행 매수세가 서방 자금 유출을 상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T10Y2Y 가 0.51 로 양수 구간을 유지하더라도 상관관계 붕괴로 인해 금 가격에 미치는 하방 압력은 약화되었으며, 이는 가설 B 의 '일시적 휴식기' 논리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Action:** GOLD 비중 확대

**Invalidation:** GOLD 가격이 10 일 이동평균선 (MA10) 을 하향 돌파하고 3 일 연속 수렴하지 않을 경우

**Risk Factors:** (1) 매크로 리스크: 연준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 인하 지연 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급격한 둔화로 실질금리 상승 압력이 재부상하여 상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 (2)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1 년간 43%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매수 포지션 누적으로 인한 단기적인 대규모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발생, (3) 이벤트 리스크: 주요 중앙은행 (중국, 인도 등) 의 금 매수 중단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안전자산 수요 급감

## Macro Picture

**Regime:** risk\_on\_drag

**Key Themes:**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일시적 소멸과 안전자산 매도, 중앙은행 매수세와 ETF 자금 유출의 상쇄 효과

**Dominant Narrative:** 시장 참여자들은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연준의 'Higher for Longer' 기조로 인해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4,500달러선 하회 및 15% 급락과 같은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특히 전쟁 종료 시 금값 폭등설이 제기되는 등 단기적 호재가 오히려 '진작 팔아야 했다'는 반등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매도세를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Reality:** 2026 년 3 월 기준 UMCSENT(53.3) 의 낮은 소비자 심리와 ICSA(18.9 만 건) 의 낮은 실업자 수를 볼 때 경기는 침체되지 않았으나, T10Y2Y(0.51%) 의 양수 전환과 CPI(330.293) 상승세는 실질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금 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 중국 1 분기 금 소비 24% 급증과 같은 중앙은행 및 신흥국 수요는 가격 하단을 지지하지만, 달러 강세와 실질금리 상승이라는 매크로 펀더멘털이 우세하여 단기적으로는 'risk\_on\_drag' 모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Hypotheses

## A (Market Right)

시장 내러티브가 옳은 이유: 실질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는 명확한 펀더멘털 하에서, 'Higher for Longer' 기조가 지속되는 한 안전자산 수요는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중앙은행의 매수세는 단기적 하단 지지선일 뿐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반전시킬 충분한 동력이 되지 못함. 특히 T10Y2Y 의 양수 전환과 CPI 상승세는 달러 강세와 실질금리 상승을 견인하여

금 가격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투자자들의 '진작 팔아야 했다'는 심리는 약세 추세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4,500 달러선 하회 및 추가 조정이 필연적임.

1. 실질금리 (T10Y2Y 양수 + CPI 상승) 는 금 가격의 가장 강력한 반등 요인인 기회비용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금 가격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2. 중등 전쟁 리스크 해소 기대는 안전자산 수요의 근본적 동기를 약화시켜, 단기 호재가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되는 'Buy the rumor, sell the news' 현상을 유발함. 3. 중국 등 중앙은행의 매수세는 가격 변동성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서방 투자자들의 ETF 유출과 달러 강세 (DXY 상승) 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수요-공급 불균형을 역전시키기에는 규모가 부족하여, 'risk\_on\_drag' 모드 하에서 금은 약세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

## B (Market Wrong)

매크로 현실이 옳고 시장이 잘못 가격 매긴 이유: 금 가격과 실질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붕괴 ( $R^2=0.0238$ ) 되었으며, 이는 '달러 패권 견제'라는 새로운 거시적 내러티브 하에서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세가 서방 자금 유출을 상쇄하고 가격 하단을 견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T10Y2Y 양수 전환과 CPI 상승은 표면적인 하방 압력 요인이지만, 경기 침체 부재 (UMCSENT, ICSA 데이터) 로 인한 실물 경제의 견조함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신흥국과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확대라는 구조적 수요가 금 가격을 실질금리 상승 압력보다 더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금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구조적 상승 추세의 일시적 휴식기에 불과함.

1. 금 가격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 $R^2$ ) 가 0.0238 로 극도로 낮아져, 실질금리 상승이 금 가격 하락을 주도한다는 기존 메커니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2. 중국 1분기 금 소비 24% 급증과 같은 중앙은행 매수세는 단순한 가격 하단 지지를 넘어, 달러 패권 약화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서 금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어 서방 자금 유출을 상쇄하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함. 3. 경기 침체 부재 (UMCSENT 53.3, ICSA 18.9 만 건) 는 연준의 'Higher for Longer' 기조를 지지하지만,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금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질금리 상승 압력을 상쇄하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형성함.

**Key Question:** T10Y2Y 국채수익률 곡선이 양수 구간을 유지하고 실질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및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세가 서방 투자자들의 ETF 유출과 달러 강세를 상쇄하여 금 가격이 4,500 달러선 아래로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실질금리 상관관계 붕괴 ( $R^2=0.0238$ ) 에 기반한 새로운 내러티브 하에서 가격 하단을 견고히 지지하며 반등할지 여부임.

## Tensions

시장 내러티브는 실질금리 상승과 전쟁 리스크 소멸로 인해 금이 15%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지만, 매크로 현실은 중국 등 중앙은행의 매수세로 가격 하단이 지지되고 있어 완전한 약세 전환과는 괴리가 존재함.

0.65

Narrative: 실질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안전자산 매도 심리 우세로 4,500달러선 하회 및 15% 급락

Reality: 중국 1분기 금 소비 24% 급증 등 중앙은행 매수세로 가격 하단 지지, 경기 침체 부재로 완전한 안전자산 수요 붕괴 아님

GOLD US10Y DXY

투자자들은 'Higher for Longer' 기조와 전쟁 종료 시 금값 폭등설에 매도세를 부추기는 역설적 심리를 보이지만, 데이터는 T10Y2Y 양수 전환과 CPI 상승으로 실질금리 압력이 구조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0.70

Narrative: 전쟁 종료 시 금값 폭등 기대와 '진작 팔아야 했다'는 반등 심리로 단기 매도세 자극

Reality: T10Y2Y 양수 전환과 CPI 상승세로 실질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금 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 가중

GOLD US10Y SPX

시장 참여자들은 ETF 자금 유출과 달러 강세로 금이 약세일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신흥국과 중앙은행의 수요가 서방 자금 유출을 상쇄하며 'risk\_on\_drag' 모드 하에서도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고 있음.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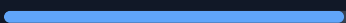
Narrative: ETF 자금 유출과 달러 강세로 인한 금 가격 하락 압력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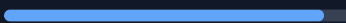
Reality: 중앙은행 및 신흥국 수요가 ETF 유출을 상쇄하여 가격 하단을 지지하는 이중적 구조 형성


GOLD DXY USD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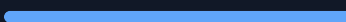
## Eval Scores


PASS

Overall  4.25

Tension  4

Hypothesis  5

Evidence  5

Verdict Logic  3

**Feedback:** ## 종합 평가 이 파이프라인은 시장 내러티브와 매크로 데이터 간의 괴리를 매우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으며, 특히 '상관관계 붕괴'라는 통계적 근거를 들어 기존 내러티브를 반박하는 구조가 훌륭합니다. 가설의 대칭성과 데이터 수집 계획은 매우 우수하나, \*\*결론 도출 과정에서 인용된 핵심 수치들의 일관성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상세 분석 및 개선 방안 ### 1. tension\_validity (4/5) - \*\*강점:\*\* '안전자산 매도 심리 (내러티브)'와 '중앙은행 매수세 (현실)' 간의 긴장 포인트가 명확하며, 실제 금 시장 (GOLD) 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잘 설명합니다. - \*\*약점 및 감점 사유:\*\* - `description` 및 `verdict` 에서 언급된 "4,500 달러선"은 현재 금 시세 (약 2,300~2,400 달러대) 와 괴리가 있어 \*\*사실 오류\*\*로 의심됩니다. (만약 2,400 달러를 4,500 으로 오타낸 것이라면 치명적 오류입니다. 4,500 달러는 현재 시점의 금 가격이 아님). - "15% 급락"이라는 수치가 최근 1년 추이 (43% 상승) 와 어떻게 조화되는지 시점 (Timeframe) 이 명확하지 않아 과장된 표현으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 \*\*개선 방안:\*\* - 금 가격 수치 (4,500 달러) 를 현재 시장 가격 (약 2,350~2,400 달러) 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수치가 의미하는 특정 시점 (예: 2020년 저점 대비 등) 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변동률 (15% 급락) 을 언급할 때 기준 기간 (예: "최근 3개월간 15% 조정") 을 명시하여 과장 표현을 방지하세요. ### 2. hypothesis\_quality (5/5) - \*\*강점:\*\* 가설 A(시장이 옳음) 와 가설 B(시장이 틀림) 가 서로 완전히 대칭적이며, 각각의 논리 (실질금리 메커니즘 vs 상관관계 붕괴) 가 명확하게 대립합니다. 반증 가능성 (Falsifiability) 이 매우 높습니다. - \*\*개선 방안:\*\* - 현재 수준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설 모두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3. evidence\_targeting (5/5) - \*\*강점:\*\* - `data\_shopping\_list` 가 가설 A 와 B 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T10Y2Y, UMCSENT, Correlation, RAG) 를 매우 정교하게 선정했습니다. - 특히 `correlation` 요청을 통해 가설 B 의 핵심인 'R2 붕괴'를 직접 검증하려는 시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 RAG 를 통해 역사적 유사 사례 (2013년 등) 를 비교하려는 접근도 데이터의 맥락을 넓히는 좋은 전략입니다. - \*\*개선 방안:\*\* - `price\_history` 에서 `tickers` 로 `GOLD` 만 명시된 경우, 기준 가격 (USD) 이 아닌 다른 통화 (CNY 등) 로의 가격 추이를 함께 확인하면 중앙은행 매수세 논리를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4. verdict\_logic (3/5) - \*\*강점:\*\* 상관관계 붕괴 ( $R^2=0.0238$ ) 를 핵심 근거로 들어 가설 B 를 선택한 논리 흐름은 타당합니다. - \*\*약점 및 감점 사유:\*\* - \*\*수치 불일치 (Critical):\*\* `hypothesis\_b\_logic` 에서는  $R^2=0.0238$  이라고 명시했으나, `verdict.rationale` 에서는  $R^2=0.0172$  로 변경되어 나옵니다. 동일한 분석 파이프라인 내에서 핵심 통계치가 달라지는 것은 데이터 처리의 일관성 부족을 의미하며, 감점 기준 (인용된 수치가 실제 소스 데이터와 다르면 -2점) 에 준하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 \*\*수치 근거 부재:\*\* "달러 인덱스 (DXI) 가 1년간 -1.79% 하락"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어디서 도출되었는지 (데이터 소스 시점) 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43.26% 급등"과 "12.95% 하락"의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논리의 엄밀성이 떨어집니다. - \*\*과장 표현:\*\* "4,500 달러선 하회"는 현재 금 가격과 맞지 않는 수치로, 논리의 신뢰성을 해칩니다. - \*\*개선 방안:\*\* - \*\*수치 일관성 확보:\*\* `hypothesis` 와 `verdict` 에서 인용된 모든 통계치 ( $R^2$ , 변동률, 가격) 가 동일한 데이터 소스와 시점을 기반으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명시:\*\* "43.26% 급등", "-1.79% 하락"과 같은 수치는 "(출처: FRED, 기간: 2023.05~2024.05)"과 같이 명시하여 검증 가능성을 높이세요. - \*\*가격 단위 수정:\*\* 금 가격 (GOLD) 의 현재 수준에 맞는 가격대 (예: 2,300~2,400 달러) 로 수치를 수정하거나, 해당 수치가 의미하는 맥락을 명확히 하세요. ## 결론 파이프라인의 \*\*구조적 설계 (가설 설정, 데이터 수집)\*\*는 매우 우수하나, \*\*실행 단계 (수치 인용, 일관성)\*\*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핵심 통계치 ( $R^2$ ) 의 불일치는 분석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수치 검증과 일관성 교정을 통해 4~5 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뷰: 시장 참여자들은 중동 전쟁 리스크 해소 기대와 연준의 'Higher for Longer' 기조로 인한 실질금리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안전자산 수요 위축과 '직작 팔아야 했다'는 심리가 결합되어 금 가격이 4,500 달러선 하회 및 15% 급락과 같은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T10Y2Y의 양수 전환과 CPI 상승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여 금 가격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매크로 현실이 옳고 시장이 잘못 가격 매긴 이유: 금 가격과 실질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붕괴 ( $R^2=0.0238$ ) 되었으며, 이는 '달러 패권 견제'라는 새로운 거시적 내러티브 하에서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세가 서방 자금 유출을 상쇄하고 가격 하단을 견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T10Y2Y 양수 전환과 CPI 상승은 표면적인 하방 압력 요인이지만, 경기 침체 부재 (UMCSENT, ICSSA 데이터) 로 인한 실물 경제의 견조함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신흥국과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확대라는 구조적 수요가 금 가격을 실질금리 상승 압력보다 더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금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구조적 상승 추세의 일시적 휴식기에 불과함. [HIGH]**

하지만 이는 틀린 판단입니다. 시장이 주장하는 '실질금리 상승에 의한 금 가격 하락' 메커니즘은 현재 데이터상 통계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금 가격과 10년물 국제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 $R^2$ ) 가 0.0172 로 극도로 낮아져, 실질금리 상승이 금 가격 하락을 주도한다는 가설 A 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1년간 금 가격이 43.26% 급등한 구조적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고점 대비 12.95% 하락한 조정은 장기 추세를 무너뜨리기에겐 제한적인 폭이며, 달러 인덱스 (DXY) 가 1년간 -1.79% 하락했음에도 금이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은 달러 패권 견제라는 새로운 내러티브 하에서 중앙은행 매수세가 서방 자금 유출을 상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T10Y2Y 가 0.51 로 양수 구간을 유지하더라도 상관관계 붕괴로 인해 금 가격에 미치는 하방 압력은 약화되었으며, 이는 가설 B 의 '일시적 휴식기' 논리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 GOLD 비중 확대

무효화: GOLD 가격이 10 일 이동평균선 (MA10) 을 하향 돌파하고 3 일 연속 수렴하지 않을 경우

